

호칭을 통해 다시 읽는 마태복음

- 설화구조와 담화구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

곽노경(이화여대 불어불문학 강사)

논문초록

본 연구는 그레마스의 서사기호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마태복음 텍스트에 나오는 여러 호칭들을 통해 나타나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설화구조와 담화구조를 분석하였다. 우선 담화차원에서 호칭을 통한 통사구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마태복음의 주제화와 더불어 피발화자인 독자를 조종하는 발화자의 조정행위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먼저 호칭을 통한 마태복음의 설화구조에서는 주체인 예수가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악의 세력에서 이접하여 하나님의 세력과 연결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추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지칭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텍스트를 세 개의 시퀀스로 나누었고 이 세 시퀀스를 다시 크게 둘로 분류하여 마태복음에서 보조 프로그램과 기본 프로그램이 서사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분석으로 마태복음 안에서 호칭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화를 시도하였으며 여러 호칭의 흐름이 독자의 인식 공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나아가 피발화자인 독자가 호칭의 전개로 어떻게 발화자의 의도에 접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그레마스 서사기호학, 예수의 호칭, 담화구조, 설화구조, 시점, 주제화, 발화자의 조정행위

- I. 서론
- II. 마태복음의 통사구조
 - 1. 서사기호학에서 다루는 발화의 개념
 - 2. 호칭을 통해 담화 차원에서 드러나는 통사 구조
 - 3. 주관적 해석
- III. 결론

I. 들어가는 말

현대인들은 성서를 새롭게 듣고 싶어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언어 과학적 결과에서 비롯된 새로운 독서법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성서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해주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성서를 읽은 습관이나 전통적인 방법은 인간의 언어활동을 중시하는 현대적 문화의 맥락 속에서 성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독서의 과정이 문화적 맥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도 새로운 방법론을 성서 읽기에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주로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이 방식이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 여러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결합체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방식은 성서이야기보다는 역사적인 정황을 해석하며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 집필시기에 존재했던 최초의 의미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성서가 지니고 있는 서사적인 성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 독자를 성서 본문과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성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제는 독자로 하여금 성서 본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성서에 흥미를 갖도록 새로운 독서법을 발굴해야 할 시기이다. 그래서 성서 독서의 방법론도 현대인의 요구에 발맞추어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이미 너무나 익숙해진 성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시도

하도록 새로운 독서 방법을 제시하여 성서를 읽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성서 연구에 있어서도 새 방법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사기호학적 분석방법이다. 마태복음은 서사기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와 담화로 구성된 통일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서사로서의 마태복음을 읽는 것은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사기호학적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연구하기 위해 성서를 읽고 분석할 때 주관성의 문제는 모든 독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성의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성서읽기는 어떤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텍스트 안에 객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서사기호학적 구조와 그것을 읽는 독자의 주관성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여러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텍스트의 의미를 생성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네트(Genette, 1972; 267)는 "이야기의 진정한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주네트의 주장은 성서분석의 방향이 새롭게 전향되어야 함을 뒷받침해준다. 즉 텍스트를 분석할 때 이야기 내용을 발화하는 행위와 담화를 창출하는 규칙을 밝히면서 텍스트의 생성적 접근을 시도했던 연구에서 독자 측면에서의 수용에 관심을 갖는 분석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의 측면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며 여러 의미가 충돌되어 있는 예수의 호칭이라는 형상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텍스트에 나타나는 설화구조와 담화 구조를 살펴보고 분석한 뒤 우리의 주관성이 어우러진 해석, 즉 발화자가 발화문을 통해 피발화자인 독자를 이끌려는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마태복음의 통사구조

서사기호학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텍스트 자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마태복음 텍스트를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서사기호학적인 분석의 기본 작업은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망을 추출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통해 읽으면서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는 요소들을 고찰하여 텍스트 표면에 어떤 요소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어떤 요소들 사이에 차이와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핀다. 그런 다음 추출된 요소들이 심층에서 맺는 불변의 관계들을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이처럼 텍스트에 일관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심층에서 맺어지는 불변의 관계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을 알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텍스트의 설화구조와 담화 구조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텍스트 담화 구조의 통사를 형성해주는 발화 과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텍스트의 심층을 이루는 설화 구조가 담화 구조로 전환하여 담화화 하기 위해서는 발화(énonciation)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알아야만 분석의 기본 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서사기호학에서 말하는 발화의 개념을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사기호학에서 다루는 발화의 개념¹⁾- 발화의 개념과 발화를 이루는 발화 행동자

위에서도 언급했듯 서사기호학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발화문(énoncé)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발화문은 그것을 생산하는 발화자(énonciateur)를 전제로 하며 일정한 조각을 거친 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탄생한다. 그래서 발화문은 발화, 혹

1) 박인철 (2003: 373-459)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요약하였음을 밝혀둔다.

은 발화 행위(acte d'énonciation)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발화 행위란 벤 베니스트(Benveniste, 1966:80)에 따르면 랑그(집단이 공유하는 체계)의 개인적인 사용인데 발화자는 발화를 통해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발화문 안에는 발화자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표지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표지들은 마태복음 텍스트에서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15에서 발화자가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부분에서 발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며 독자에게 인지적 정보를 직접 부여한다.

이처럼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는 발화의 소산을 담화(discours)라 한다. 언어학자들 가운데 주관성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언급하며 담화와 이야기(récit)를 구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야기 안에도 발화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발화문을 발화의 소산인 담화로 보며 발화를 텍스트를 생산한 조건으로 간주한다. 모든 담화의 의미는 텍스트를 생산한 조건인 발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학과 서사기호학에서는 텍스트가 발화 행위의 소산임은 인정하지만 이 발화 행위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텍스트의 의미로 환원시키지 않고 항상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조직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려 한다. 서사기호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재적인 접근 방식으로 발화문제에 접근한다. 하나는 언어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화문 안에 남겨진 발화의 표지, 그 흔적을 통해 발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화는 발화문 내에 존재하는 표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발화된 발화'이다. 발화자는 발화 행위를 나타내는 표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지시한다. 따라서 서사기호학은 이 표지에 입각해서 발화자가 발화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발화와 발화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려 한다. 다른 하나는 발화를 발화문으로서의 담화 전체를 조직하는 장소로 보고 발화 그 자체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발화는 담화 내의 모든 요소들을 생산하고 나아가 이들을 하나의 유의적인 전체로 조직하는 장소로 간주한다. 그래서 시점, 지식의 배분, 가치 체계의 전달,

문체 등이 문제시 된다. 비록 발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함께 진행된다.

이제 생산한 발화에서 발화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발화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가 남긴 흔적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발화문을 제시하고 있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발화자의 이야기 방식이 어떠한든지 간에 스토리 자체, 즉 발화된 발화문은 동일하다.²⁾ 발화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서사기호학의 관점에서 행위는 행위 주체, 대상, 행위 주체에 의해 수혜를 받는 상태 주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것을 발화 행위에 옮기면 행위 주체는 발화자, 대상은 발화문, 상태주체는 피발화자에 해당한다. 이 세 행동자들이 바로 발화 행동자인 것이다. 발화 행동자들은 발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F(S_1 \rightarrow (S_2 \cap O))^{3)}$$

(F는 발화, S_1 은 발화자, S_2 는 피발화자, O는 발화문을 가리킨다)

비록 담화가 발화 혹은 발화자의 산물이기기는 하지만 발화 작용자체나 발화자 자체를 직접 지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발화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결코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없는 최후의 카메라가 발화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화자는 '부재하는 현존'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발화자는 발화문 속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이나 표지를 남긴다. 발화자는 발화문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혹은 자신이 조종하려는 방향으로 피발화자를 이끌어간다. 따라서 발화자가 발화문을 통해 조종하는 방향

2) 마태복음에서 주된 이야기(스토리)는 예수의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예수의 생애를 말한다.

3)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은 행위 주체인 발화자(S_1)는 상태 주체인 피발화자(S_2)를 대상인 발화문(O)과 이접한 상태에서 연결한 상태로 이행시키려한다고 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호칭을 통해 담화 차원에서 드러나는 통사 구조

위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보도록 하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설화구조에 구체성을 띠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발화자인데 우리는 발화자가 마태복음의 설화구조에 구체성을 띠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호칭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배가시켰다고 본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지칭하는 수많은 호칭들이 등장한다. 예수(여호와 구원자),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리스도, 왕, 침례 주는 이, 빛, 선생, 치료자, 죄를 사해주는 이, 신랑, 목자, 친구, 지혜, 안식, 더 큰 성전, 참 다윗, 안식일의 주인, 요나보다 큰 이, 솔로몬보다 큰 이, 씨 뿌리는 자, 씨, 먹이는 자, 떡, 상 아래의 부스러기,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를 위한 반석,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 왕국을 세우는 분, 지금의 모세, 지금의 엘리야, 머릿돌, 주, 부활하신 분, 권위를 가지신 분, 부활 안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하시는 분 등 참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 나아가 우리가 부르는 호칭은 인격을 필요로 하며 인격 그 자체이다. 인격이 없는 이름이나 호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호칭은 마태복음 이야기 전체가 보여주려는 예수를 이해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술자가 예수를 지칭하는 호칭, 예수가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 그리고 대화 상대자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에서 의미 생성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유사와 차이의 작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예수의 여러 호칭은 설화구조의 시퀀스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시퀀스 내부에서 발화자가 피발화

자에게 전달하려는 발화자의 지식을 대변해주는 시점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피발화자를 조종하는 발화자의 조종행위를 드러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칭을 통해 구별되는 설화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발화를 통해 발화가 어떤 방식으로 그 흔적을 발화문에 구상적으로 남기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텍스트에서 발화자의 '주관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시도이다.

(1) 설화구조

우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설화구조를 살펴보겠다. 이 설화구조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설화 구조를 통해 우리는 마태복음 안에 나타난 여러 호칭들을 일관성 있게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설화구조의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의 이행은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체가 되는 '예수'의 상태는 사탄을 주축으로 하는 악의 세력과 주의 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하나님의 세력에 의해 변형된다. 즉 '예수'를 주체로 보고 대상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주체는 악의 세력에 의해 구원과 이접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세력에 의해 다시 연접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은 예수의 변형에 대한 조작 주체의 역할을 한다. 악의 세력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 '생명'을 빼앗지만 후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에피소드에 의해 새로운 반전이 야기되고 결국 구원 사역은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구원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 악의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 대상은 '구원의 실패'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이 나타내는 가치대상은 무엇일까? 우선 등장인물부터 구별해보도록 하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섯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예수(마태 이야기의 주인공,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대표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제자들(갈등적 특징을 지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자. 그러나 도전적

인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도 하는 다소 자기중심적인 인물들. 하지만 예수께서 권세를 지냈으며 세상 끝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예수가 맡긴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 악의 세력(사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로 악하고 위선적이며 불법을 행하고 현세에서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자), 무리들(예수에 대해 호의적이나 믿음이 없어 흔들리며 경멸적인 언행을 행사하기도 하는 자), 하나님의 세력(주의 사자, 천사들로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전달하며 예수를 보호하는 자)이다. 이 가운데 악의 세력을 제외한 등장인물은 장소의 이동을 자주한다. '장소의 이동'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추구'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가면서 추구하는 가치대상은 하나님 뜻의 완성인 구원이다. 마태복음에서 인물들의 추구는 예수의 추구를 중심으로 정돈될 수 있다. 악의 세력의 추구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죽음을 당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빼앗겨 인간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을 갖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가 생명을 찾고 부활하도록 하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어오는' 사건으로 예수의 권위를 회복시킴으로써 악의 세력의 추구를 좌절시킨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예수의 부활을 숨기고 은폐하며 자신들이 본래 지키려던 가치대상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에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설화구조를 보았다. 이제 우리는 분석을 위해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주어진 텍스트를 셋으로 분할하는 기준은 서술자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시간과 공간의 이접관계이다. 이 분석의 상세한 설명은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 첫 번째 시퀀스: 마태복음 1장 1절-1장 17절 (도입부, 과거)
- 두 번째 시퀀스: 마태복음 1장 18절-16장 20절 (현재)

- 세 번째 시퀀스: 마태복음 16장 21절-28장 20절 (미래)

그럼 각 시퀀스의 설화구조의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우선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 첫 시퀀스의 프로그램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조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다. 기본 프로그램은 물론 예수가 구원(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보조 프로그램은 '역량'에 해당하는데 조작 주체가 그 수행⁴⁾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의 계보를 보여주는 보조 프로그램은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왕)라는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서술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양상적 가치(valeur modale)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왕의 계보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사회적 권위와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왕의 계보는 양상가치가 투여된 '양상 대상'이다.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은 예수(S₁)의 왕의 계보에 대한 정당성(O₁) '획득'(연접의 재귀적 행위)과 악의 세력(S₂)의 왕의 계보에 대한 정당성으로 이루어진 대상의 '박탈'(타동적인 이접행위)이 상관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획득과 박탈이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시련은 일종의 '대결적인' 성격을 가진다. 한 주체의 성공은 다른 주체에게는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결구조는 기본 프로그램까지 이어져 '왕'이라는 호칭과 관련하여 예수와 악의 세력 사이에 권위와 호칭에 대한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보조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예수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 프로그램에서 예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가 선지자의 예언에 걸맞는 그리스도(왕)라는 것을 전제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기본 프로그램은 수행(performance)에 해당하고 보조 프로그램은 역량(compétence)에 해당한다. 수행이란 상태의 변형을 실현하는 조작주체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begin{array}{ccc}
 & \{ (S_1 \cup O) \rightarrow (S_1 \cap O_1) \} \text{ 획득} & \\
 F(S_1) \rightarrow & & \} \text{ 시련} \\
 & \{ (S_2 \cap O) \rightarrow (S_2 \cup O_2) \} \text{ 박탈} &
 \end{array}$$

이와는 달리 기본 프로그램은 앞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우선 기본 프로그램의 가치 대상은 구원(하나님의 뜻)이다. 예수(S_1)는 (하나님의) 백성(S_3)이 구원(O_2)을 받고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여기서 예수는 백성에게 구원을 수여(연접의 타동적 행위)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용과 비포기의 프로그램이 상관관계를 이루는 연사를 우리는 '분유적(分有的) 전달'⁵⁾이라고 한다. 분유적 전달의 경우에는 시련처럼 가치 대상의 순환이 폐쇄적인 가치 체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발령자가 위계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령자들에게 가치 대상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발령자가 수령자에게 이 가치를 전하더라도 그는 이 가치를 전혀 잃지 않는다. 이처럼 예수의 구원은 결코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분유적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5) 본 논문에서 '백성'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일반 군중, 예수에 대해 적대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다.
 - 6) 분유적 전달이란 박인철에 따르면 플라톤 철학에서 비롯된 용어인데 이데아가 그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전하지 않고 그 빛을 모든 사물에게 나누어주지만 자기가 그 빛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begin{array}{l}
 \{ (S_1 \cap O_2) \rightarrow (S_1 \cap O_2) \} \text{ 비포기} \\
 F(S_1) \rightarrow \hspace{15em} \} \text{ 분유적 전달} \\
 \{ (S_3 \cup O_2) \rightarrow (S_3 \cap O_2) \} \text{ 수여}
 \end{array}$$

그런데 여기에서 전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실제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가치이다. 독자는 시련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예수와 악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주원인이 '왕'이라는 호칭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그 뒤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시련의 전개는 분유적 전달로 이행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나가는 예수의 행정과 여러 연기자들이 호칭을 통해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연접과 이접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제 예수의 사명(구원)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획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미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왕)의 계보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한 예수이지만 주의 사자와 헤롯이 모두 예수를 '아기'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 아기 예수는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무력한 위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가 시험을 당한다. 즉 예수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했다⁷⁾. 즉 예수는 백성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의지/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잠재적 주체이다. 예수가 잠재적 주체로부터 현실적 주체가 되려면 /지식/ 과 /능력/을 획득해야한다. 그런데 예수는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에 대한 지식을 드러낸다. 예수의 지식

7) / /은 안에 있는 용어는 의소이자 상위 언어임을 나타낸다. 그 안에 있는 용어는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를 포함하는 범주에 속한 다른 용어와의 대립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다.

은 옛 율법을 새 율법으로 완성하는 지식이다. 또한 산상수훈 이후 치료, 기적, 가르침을 보여주며 백성을 구원하고 자신의 진정한 제자로 삼으려 애를 쓴다. 이렇듯 모든 사명을 행하며 자신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을 제자로 삼아 자신이 지닌 권능을 수여한다. 하지만 수령자로서의 백성은 이 권능을 직접적으로 획득하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권능을 몸소 행해야만 이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비록 백성이 예수의 사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에 대한 믿음, 지식,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백성의 불신앙, 무지, 무능력을 변화시키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이다. 백성의 역량 획득에 있어서 예수는 원조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는 백성을 가르치고 권능도 보여준다. 이처럼 예수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조종하면서 아울러 이 조종을 통해 백성에게 결여되어 있는 양상을 부여한다. 백성이 구원에 접근하는 것은 예수의 조종, 즉 그의 사역행위를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예수의 사역행위는 백성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예수는 사명의 문제로 갈등하던 백성의 부정적인 역량인 /행위 무능력/을 긍정적인 역량인 /행위 능력/으로 바꾸어 놓는다. 예수는 백성을 사명에 접근하도록 하는 조종자로서의 발령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조력자로서의 발령자 역할도 한다.

또 능력 면에서 보더라도 예수는 사탄과의 결투에서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다.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으며, 자연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그렇지 못하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쫓겨나며 뒤로 물러서고 예수를 죽이려 계획하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본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반면 악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이처럼 온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광범위한 사역을 펼치는 예수가 두려워 떨며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 지역만을 지키는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2) 피발화자(독자)에게 전달하는 발화자의 시점

위에서 분석한 설화구조와 시퀀스를 중심으로 호칭을 통해 나타난 발화자의 시점을 발화와 발화 작용의 관점으로 살펴보겠다. 발화자는 호칭을 통한 시점의 변화를 마태복음에서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세 번 사용하며 주제별로 묶어 마치 '묶음'을 이루듯 그룹화 시켜주고 있다. 서술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마다 마태복음 이야기 전개의 흐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하 '마'로 표기) 이야기를 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시퀀스(마:1:1-1:17)는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사실들을 기록한 계보이다. 예수의 현존이 있기 이전 과거의 사실들을 기록해주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해 내려오는 구도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참으로 풍성하다. 그런데 이런 호칭의 풍성함은 마태복음의 첫 시퀀스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의 계보를 열거해주는 동시에 예수의 조상 모두가 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발화자에 의해 선별된 인물들이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낳고'라는 단어의 반복과 더불어 누가복음의 계보와는 반대로 계보가 위에서 그리스도로 전개해 내려오면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두 번째 시퀀스(마 1:18-16:20)는 예수가 스스로를 지칭한 호칭인 '나-인자'가 예수의 말씀과 육체의 현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주 무대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여러 공간이다. 그런데 두 번째 시퀀스로 접어들면서 호칭은 급격히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이 부분에서 예수와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호칭은 마치 퍼즐처럼 예수의 모습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 듯한 형상을 드러낸

다. 두 번째 시퀀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점은 시퀀스 마지막에 베드로와 예수가 나누는 대화이다. 발화자는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와 '나'로 구별하여 지칭하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하는 말과 제자인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대조 시킴으로써 발화자의 시점을 부각시킨다(마16:13-16). 또한 구별된 호칭을 통해 말씀의 권세를 지닌 예수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지식을 피발화자에게 확실히 알려준다. 세 번째 시퀀스(마16:21-28:20)는 예수의 '나-인자' 사용이 말씀인 '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자'로 구별되는 구도를 이루며 말씀과 사역을 구분해주는 동시에 예수 사역의 미래적 측면을 강조해준다. 공간적 측면에서도 예루살렘 근방과 예루살렘 안에서 사건이 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세 번째 시퀀스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말씀, 그 자체이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인자이고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보여준다.

이 세 시퀀스에서 우리는 특히 시점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점은 발화자의 의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피발화자의 시선을 조종한다는 점에서 발화 작용을 전제한다. 피발화자인 독자에게만 작품의 의미를 밝혀주는 열쇠를 제공하는 시점은 담화의 차원에서 발화를 드러내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은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발화문 내의 호칭을 독자에게 크게 부각시키며 복음서를 시작한다. 두 번째 시퀀스로 접어들며 주의 사자,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달해주며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에 대해 지닌 생각에 따라 호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세 번째 시퀀스로 접어들면서 발화자는 예수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가롯 유다(마 26:14), 예수를 한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마21:11), 비자(마26:69, 26:71), 빌라도(마27:17)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발화문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설적 지식을 피발화자에게 전달한다. 이처럼 발화문 내에서 인표된 것과 발

회문이 언표한 것 사이의 괴리는 피발화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결국 발화자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피발화자에게만 알려주는 결과를 낳는다.⁸⁾ 그런데 피발화자인 독자는 발화자가 택한 시점을 일단 수용해야 한다. 시점을 비평하기에 앞서 우선 그 시점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텍스트의 시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의해 독자는 발화자가 의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발화자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과 땅의 매개적 존재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을 통해 끝날 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마태복음 이야기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에 관해 가장 의미 있는 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3) 예수의 호칭을 이루는 형상과 형상에 대한 주제화

마태복음에서 호칭은 단지 누구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충당되어 있는 형상이다. 이 의미는 호칭에 담겨 있는 여러 형상들에 대한 주제화를 통해 부여된다. 첫 시퀀스에 나타나는 예수의 호칭인 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요 메시아임을 입증한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들과 연합하심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삼위 일체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통과하여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나오신 분이다. 따라서 천국과 인간의 연합을 보여주며 기본 프로그램에서 전개될

8)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를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부르는 호칭이 발화문 내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호칭은 오히려 피발화자에게 예수의 진정한 모습이 발화문 내에 언표된 호칭과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따라서 피발화자는 발화자가 호칭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예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인다.

사건의 매개적 모티브이다. 첫 시퀀스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하늘과 땅의 일종의 매개적 호칭이다. 이제 두 번째 시퀀스와 세 번째 시퀀스를 하나로 묶어 기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호칭을 살펴보도록 하자. 마태복음 2장에 예수를 상징하는 자연 계시로 '별'(2장7절)이 등장한다. 뒤이어 죄인이며 이 땅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돌'(3장9절)이 언급된다. 한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빛'과 '사망의 땅'의 대립도 나타난다. 이러한 구상체에 공통되는 범주로 /하늘/ 과 /땅/의 대립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또한 /밝음/ 대 /어둠/이라는 대립 쌍과 /높은/ 대 /낮은/이라는 대립쌍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설화구조에서 구원에 대한 이접과 연접과도 연관되며 주제적인 것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구원과 연기자의 연접과 이접 상태는 연기자들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보여주는 대립으로도 나타난다. /하늘/에 속한 호칭(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을 사용하는 연기자들은 예수에 대한 호의를 나타내는 반면 경멸적 혹은 의혹이 담긴 호칭(그리스도야!,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나 철저히 인간적인 호칭(갈릴리 사람 예수, 사람)을 사용한 연기자들은 예수에 대해 적의를 드러낸다. 따라서 구원과의 연접 상태에 대응하는 주제를 /우의/라 하고 이접 상태에 해당하는 주제를 /적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의/와 /적의/라는 주제는 호칭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으로도 표현된다.

예수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와 여러 연기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예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 예수께서 (...)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시고

9) 물음표(?)는 의심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사용된 호칭이라는 뜻이다.

-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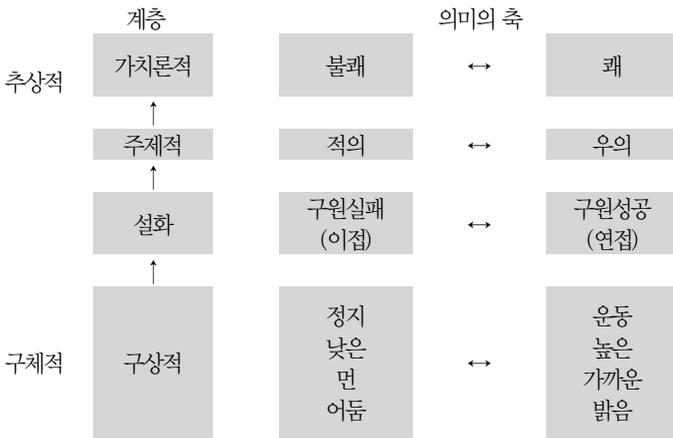
위의 묘사에서 볼 수 있듯 예수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 을 보인다. 이에 대해 백성들도 계속 예수에게 가까이 가려고 다가선다.

- 제자들이 나아오고
- 제자들이 좇았더라
-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반대로 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악의 세력은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들이 예수에게 다가오는 경우는 율법에 대한 시험을 할 때뿐이다. 따라서 구원과 연결하려는 자들은 예수에게 접근하여 연결상태로 변형하려 하는 반면 예수를 배척하며 적의를 품은 자들은 고정된 자리에서 행동 없이 말로만 시비를 걸며 소동한다. 즉 악의 세력은 /정지/ 된 형상을 보여준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구원을 얻는 변형을 추구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자기를 믿고 따르던 열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명한 '산'에 모이도록 명한다. 이처럼 움직이는 예수와 한 자리를 고수하는 악의 세력은 /운동/ 대 /정지/라는 대립쌍으로도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과 백성의 연결과 이접 상태를 공간적으로 /가까운/ 대 /먼/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예수가 백성에게 다가섬으로써 백성과 구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지만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이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접 상태에 대응하는 주제를 '적의'라고 한다면, 비이접 상태에 대응하는 주제는 적의에 대한 부정인 '비적의'라 할 수 있다. 백

성의 이러한 자세가 '비적의'를 표현한다고 함은 비록 백성이 연접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화 구조에서 의미부분을 이루는 세 계층(주제적, 구상적, 가치적)도 구원에 대한 이접과 연접이라는 설화 구조와 관련지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설화구조가 여기에 통합될 수 있는 구상적인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호칭을 통해 분석한 형상의 계층 사이의 관계를 요약해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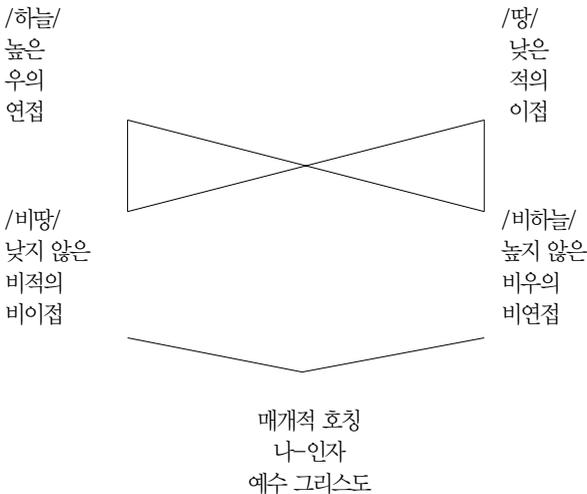
<그림 1> 형상과 계층 사이의 관계

우리는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서 연기자들이 예수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기질범주인 /쾌/ 대 /불쾌/를 드러내는 걸 읽을 수 있는데 이 잠재적인 가치들은 하나의 가치 체계로 확립되어 예수에 대한 호칭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가치는 담화 구조에서 구상적인 것과 주제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이다. 기질 범주는 주제적인 것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주제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쾌나 불쾌로 중복 규정된 주제적인 것은 연기자들을 통해 주제인 예수에 대한 호칭이 '좋은' 혹은 '나쁜'으로 표지된다. 왜

나하면 예수는 /쾌/와 /불쾌/의 상태를 모두 겪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거부당한/ /죽임을 당한/ /배척당한/ /거리가 두어진/ 상태는 불쾌에 속하고 /수용된/ /부활한/ /접근된/ /가까운/상태는 쾌에 속한다. 불쾌의 상태는 /배타적인/ 행동에서 비롯되고 쾌의 상태는 /포용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 사실 악의 세력과 예수를 경멸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일부 무리의 추구는 예수의 추구하고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제자들을 비롯해 호의적인 호칭으로 예수를 부르는 무리의 추구는 예수의 추구하고 양립한다. 배타적인 행동은 공간적으로 이점으로 표현될 수 있고 포용적인 행동은 연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악의 세력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제자들은 예수가 지시한 산에 모여 그에게 접근하여 포용적인 행동을 보이며 예수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데 예수는 /규정된/ 반면 다른 연기자들은 /중복 규정/되어 있다. /규정된/이라는 특질은 예수가 /왕/이라는 자질과 /구원자/라는 자질에 의해 보다 명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중복 규정된/이라는 특질은 연기자들을 서로 대립시킨다. 권위적 호칭(왕과 연관)의 측면에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서로 대립되고 본질적 호칭(구원자)의 측면에서는 믿음을 지닌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대립된다. 이처럼 담화구조에서 의미 부문을 이루는 세 계층(주제적, 구상적, 가치론적 계층)은 설화구조와 관련지어진다. 이는 설화구조가 여기에 통합될 수 있는 구상적인 요소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상적인 요소들은 설화 구조에 통합되어야 주제적 가치를 전달한다.

여기서 문제는 호칭에 담긴 형상들이 기호 사각형을 이루는 네 개의 사항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알아보는 일이다. 이것은 이 형상들이 어떻게 주제화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하늘과 연관된 호칭들을 보자. 이 호칭은 크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주'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늘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선지자나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호칭들, 즉 '임마누엘',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나사렛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하늘/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하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의 왕', '선생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랍비'는 위에 열거한 호칭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호칭은 구원과는 연관이 없는 눈에 보이는 예수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호칭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땅/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간주한다. /땅/을 나타내는 형상으로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하는 예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어떤 사람이기에?' 처럼 발화문 안에서 예수를 모독하기 위해 사용된 호칭이다, 하늘에 속한 호칭들은 모두 신앙 고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고백적인 배경에서 나타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스스로를 칭한 '나-인자'와 함께 서술자가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는 수평과 수직의 결합이 아니라 둘을 이어주는 중성항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 2> 형상의 주제화

3. 주관적 해석

(1) 주제화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을 토대로 마태복음의 호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화를 시도해보도록 하자.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왕으로서 이 땅과 하늘의 중보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다. 예수는 자신이 사용한 '나-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이즈음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권력을 잡는 왕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예수에 대해 오해를 하며 따라다닌 것이다. 그러다 후반부로 들어서며 예수는 인자라는 호칭의 사용으로 자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자주 언급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자인 예수는 지상적인 자, 고난 받는 자, 목시적인 자이다. 각 호칭들은 부르는 자들의 뚜렷한 경향을 반영한다. 호칭을 부르는 자와 예수가 맺는 관계의 현재성이 호칭을 통해 드러난다. 지금까지 호칭을 통한 형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하늘/에 속하는 호칭을 사용한 연기자들은 예수와 /우의/의 관계에 머물며 궁극적으로 예수가 이루려던 구원의 사역에 연결하게 되지만 /땅/에 속하는 호칭을 사용한 종교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화자가 우리에게 호칭을 통해 보여주려 한 조종행위는 무엇일까?

(2) 피발화자로서의 독자를 조정하기

우선 시퀀스의 연대적 흐름을 쫓아가며 독자의 시선과 인식을 과거-현재-미래로 이동시킨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 예수 그리스도가 '산'이라는 매개 공간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시사해준다. 매개적 호칭인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백성 즉, 독자와 함께 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발화문에서 사용된 호칭들은 /우의/ 와 /적의/라는 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때문에 이 호칭들은 독자의 시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첫 시퀀스에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함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불변의 진리로 믿고 자신들의 지식과 권위를 자랑하던 종교지도자들에게 혼동과 갈등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혼동과 갈등은 두 번째 시퀀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호칭을 포용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서로 혼재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극대화시켜주며 독자를 두 호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시퀀스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순간을 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을 통해 지금까지 위선적인 언행을 보여준 종교지도자들의 호칭이 큰 의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해준다. 나아가 무리가 예수를 경멸적, 모욕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독자의 시선을 오히려 포용적인 축으로 기울게 해준다. 이러한 호칭의 흐름은 독자의 인식 공간에 변화를 일으킨다. 독자는 종교지도자들이 강조하는 옛 율법에 우호적이던 인식 공간에서 벗어나 분유적 전달이 실현된 예수의 구원사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 공간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텍스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관찰하는 피발화자인 독자의 인식을 공간화한 발화자의 '담화 전략'에 걸려들게 만든다.

그런데 발화자의 역할은 피발화자의 시선과 인식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텍스트 내에도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증인이 있다. 두 번째 시퀀스에 나온 '나-인자' 예수는 하늘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고 세 번째 시퀀스에 나온 '나-인자' 예수는 땅에서 이를 사역에 대한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계열체의 관점에서 보면 두 평가는 별개의 사항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발화자의 조종에 이끌려서 발화문 속에 '나-인자'라는 예수 스스로의 호칭을 따라가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관계 형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도 알게 된다. 이처럼 피발화자에 대한 조종

을 각인시킴으로써 피발화자가 텍스트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다. 발화자의 의도에 동의하게 되면 피발화자는 그가 선택한 관점 그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발화를 통한 조종의 목표는 피발화자로 하여금 발화자의 관점에 동의하게끔 하는 것이다. 발화자는 호칭의 전개를 통해 /민계끔/ 하려한다. 발화자의 이런 전략에 피발화자는 이러한 전언을 믿든가 믿지 않든가 할 수 있다. 발화자는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발화자에게는 /민계끔 하는/ 긍정적인 조종을 한다.

III. 나오는 말

우리는 마태복음 텍스트에 나타나는 설화구조와 담화구조를 살펴보고 분석한 뒤 발화자가 발화문을 통해 피발화자인 독자를 조종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우선 담화차원에서 호칭을 통한 통사구조를 살펴본 결과 발화자가 설화구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호칭을 적절히 배치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배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칭을 통해 구별되는 마태복음의 설화구조는 주체인 예수가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악의세력에서 이접하여 하나님의 세력과 연결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추구'의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가며 추구하는 가치대상은 하나님 뜻의 완성인 구원이다. 서술자가 지칭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텍스트를 세 개의 시퀀스로 나누어 각 시퀀스를 연구한 결과 설화구조는 다섯 부류의 등장인물들이(예수, 제자들, 악의 세력, 무리들, 하나님의 세력) 예수를 부르는 호칭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시퀀스는 크게 보조프로그램(첫번째 시퀀스)과 기본프로그램(두번째, 세 번째 시퀀스)으로 분류되었고 보조 프로그램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왕)라는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서술자가 '양상적 가치'를 부여해준 반면 기본프로그램의 가

치는 구원(하나님의 뜻)으로 수용과 비포기의 프로그램이 상관관계를 이루는 '분유적 전달'을 나타냈다. 그 결과 피발화자의 시선은 예수의 행정과 여러 연가자들이 호칭을 통해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연접과 이접에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보조 프로그램에서 피발화자에게 전달하려는 발화자의 시점은 모든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점이고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예수가 사용한 '나-인자'라는 호칭을 통해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과 땅의 매개적 존재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이들이며 성령을 통해 끝 날까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라는 점을 부각시켜주었다.

이 모든 분석을 토대로 마태복음 호칭을 통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주제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왕으로서 이 땅과 하늘의 중보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고 예수는 자신이 사용한 '나-인자'라는 호칭을 통해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각 호칭은 부르는 자의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는데 호칭을 부르는 자와 예수가 맺는 관계의 현재성이 호칭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여러 호칭의 흐름은 독자의 인식 공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켜 독자는 종교지도자들이 강조하는 옛 율법에 우호적이던 인식공간에서 벗어나 분유적 전달이 실현된 예수의 구원사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 공간으로 움직이고 발화자의 조정에 이끌려 발화문 속 '나-인자'라는 예수 스스로의 호칭을 따라가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그 관계 형성의 중심에 예수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는 발화자의 의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발화자의 의도를 받아들인 독자는 호칭의 전개를 통해 전언을 믿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문헌

- 대한성서공회 (2001), 『큰글자 성경전서』, 서울: 요단.
- 박인철 (2003), 『파리학파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 서인석 (1984), 『성서와 언어과학』,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 Kingsbury, J. D. (1988), *Matthew as Story*, 권중선 역 (1994) 『이야기 마태복음』, 서울: 요단출판사.
- Bal, M. (1980),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한용환, 강덕화 역 (1999), 『서사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Hénault A. (1979), *Introduction à la sémantique général*, 홍정표 역 (1997), 『기호학으로의 초대』, 서울: 어문학사.
- Benveniste, 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et II, 황경자 역 (1992),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과 II』, 서울: 대우학술총서.
- Coquet, J.-Cl. (1973), *Sémiotique littéraire*: Mame.
- Genette, G. (1972), *Figures III*: Seuil.
- Greimas, Al. J. (1966),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 _____ (1970), *Du sens*: Seuil.
- Groupe d'Entrevernes (1977), *Signe et paraboles, Sémantique et texte évangélique*: Seuil.
- _____ (1978), *Analyse sémiotique des textes*: PUL.
- Rastier, F. (1987), *Sémantique interprétative*: PUF.
- _____ (1991),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UF.
- Umberto, E. (1988), *Le Signe*: Labor.

Abstract

L'exégèse à travers les appellations variées de Jesus-Christ dans l'Évangile de Matthieu

No Kyung Kwak(Ewha Womans University)

Dans cette étude, nous tentons de retracer les étapes de la production du sens avec la théorie de Greimas dans l'Évangile selon Matthieu. La signification du texte s'organise au croisement de deux lignes et d'un axe: une ligne dite «discursive» et une ligne dite «narrative» et un axe «énonciatif» où s'inscrivent les relations entre les instances de production et de réception du texte et leur projection dans les textes. Nous étudions d'abord ces deux niveaux, centrant notre attention sur les appellations différentes de Jesus-Christ. Comme la structure narrative s'élabore à partir d'une performance principale, d'une action autour de laquelle semble se nouer la transformation dont le récit rend compte, nous tentons d'organiser une représentation logique du récit. Pour le travail d'analyse, nous faisons la segmentation du texte en trois, parce que le narrateur a regroupé en «paquets» selon l'appellations, «Jesus-Christ» comme suit:

- 1ère séquence: Matthieu 1:1-1:17
- 2ème séquence: Matthieu 1:18-16:20
- 3ème séquence: Matthieu 16:21-28:20

Dans les différentes séquences narratives, nous tentons de décrire le type de performance (ce sont les différentes formes de transfert d'Objet). En effet la relation entre un Sujet(Jésus) et un Objet(Salut) est toujours impliquée dans la performance. Cette relation est en quelque sorte la matrice de l'organisation narrative. Nous envisageons que la hiérarchie des performances est réalisé en deux programme:

- un programme d'usage subordonné au programme principal
- un programme principal

Au niveau discursif, nous observons comment les éléments narratifs sont manifestés dans le texte, comment ils sont mis en discours. En tant qu'il est discours, ce texte se présente comme un agencement de grandeurs figuratives déployées sur des parcours figuratifs selon les appellations différents de Jésus. Pour préciser l'analyse des figures, nous cherchons à suivre dans le texte comment les figures des appellations s'enchaînent.

Enfin, nous explorons quelques pistes vers de possibles interprétations du texte. Au terme de l'analyse, nous décrivons une cohérence du sens, le contenu du texte comme un tout de signification et comme un dynamisme de transformation de la signification entre son état initial et le point où la mise en discours a conduit le lecteur. Nous cherchons l'expérience de la déplacement des significations acquises, expérience de construction de la signification,

expérience d'énonciation à partir des jeux de débrayage et d'embrayage énonciatifs, expérience ou travail dans lequel un lecteur se révèle à lui-même comme sujet controtté à la langue et à sa mise en oeuvre.

Mot-clé: une ligne discursive, une ligne narrative», un axe énonciatif, structure narrative

